

## 제3절 도정 주요성과

1. 민선6기 출범 이후 도정 회고
2. 민선6기 출범 이후 분야별 주요성과

## 제3절 도정 주요성과

### 1. 민선6기 출범 이후 도정 회고

민선6기 도정 출범 당시 중국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의 모든 정책을 여기에 집중한 결과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1년 반 동안 395개 기업, 7조 8천 1백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 1천 8백여 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전력과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목표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광주까지 호남선 KTX가 개통된 후 호남선 KTX 이용객은 개통 전 2,854천명 대비 49%가 증가한 4,248천명이 이용했고, 2015년 여수지역 관광객은 1,358만명이 찾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인구도 계속 줄어 왔으나, 2015년 말에는 처음으로 3,216명이 늘어났으며, 출산율도 8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였다.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수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남의 귀농·귀어·귀촌 가구는 2013년 2,506가구에서 2014년 4,608가구로 84%로 늘어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유기농 면적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학교급식의 55%를 점유하는 전남 친환경 쌀은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3년 연속 최다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 중국에 수출되고 전남 한우도 홍콩에 수출되었으며, 수산업은 연간 2조원 생산시대를 앞두고 됐다.

‘100원 택시’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작은 영화관’과 ‘공공

산후조리원'이 문을 여는 등 온정이 넘치는 전남 구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은 주민의 호응과 전국의 주목을 받아 복지분야에서 11개 상을 휩쓰는 등 전국 최고의 평가도 받았다.

노사협력에서도 8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도는 2015년 한해 동안 중앙정부 등의 평가에서 56개 분야 수상과 함께 45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민선6기 들어 2015년 국비 예산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5조 3,247억원, 2016년 국비는 2015년보다 2,637억원이 증가한 5조 5,884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공사 재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실시설계 착수, 호남선 KTX 2단계(광주송정~고막원) 실시설계 착수 등 3대 대형 SOC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나머지 고막원~목포구간은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확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2대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도 도민의 참여로 순조롭게 출발했고, 특히 흑산공항이 201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개항하면 홍도 등 우리지역 서해안의 섬관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수준의 청렴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고, 장성요양병원 및 담양펜션 화재 등 지역 안전지수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중 FTA타결 및 AI와 적조발생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생활이 고달피졌고, 대규모 판매점 입점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영업자간 갈등발생이 늘어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출범 후 전남은 거대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 기회를 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한 기간이었다.

## 2. 민선6기 출범 이후 분야별 주요성과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하반기는 도민과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기간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2015년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씩씩이 달려온 해였다.

그 결과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지역에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었다.

### 2-1.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 일자리 창출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투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민선6기 출범 후 395개 기업, 7조 8천 1백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 1천 8백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8년 연속 '노사 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에 따른 접근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확대와 ICT 전문인력 양성, 청년 희망버스 시범 운영, 선취업 후진학 과정 활성화, 일자리 목표관리제 및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등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종합대책 우수기관 선정 및 2년 연속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해 2015년 12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했고, 취업자는 91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천명 증가, 15세이상 인구는 1,504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천명이 증가했다.

## 2-2. 지역경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015년 7월 28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광양~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망 해저배관 구축을 위한 전남개발공사, 포스코 등 8개 기관과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여수산단과 대불산단에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광주시 등과 2015년 1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밸리센터 건립을 2015년 9월에 착수해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백신 글로벌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화순에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를 2015년 11월 착공하였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고흥군에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을 구축하고, ‘무인 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F1 경주장 활용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산업 육성 및 영광 대마산단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산업화를 통한 창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GS그룹 주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 6월 2일 여수에 개소하여, 농수산 벤처창업과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주관 광양 창조경제혁신도 2015년 8월 25일 개소하여 소재·부품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3. 빛가람혁신도시 및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17,95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6,07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

혁신도시 내 자족형 교육거점조성을 위해 유치원 4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14개교가 설립될 계획으로, 이 중 5개교를 개교하였으며 어린이집 25개소 중 10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진입도로 총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개통되었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원인으로 주목 받은 호혜원의 축산폐업을 2015년도에 완료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였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도시 지정 당시 농지 가격으로 토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기업도시 진입도로 해남구간은 2015년 11월, 영암구간은 2015년 12월 9일 업체를 선정해 착공하였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삼포지구의 경우 모터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2015년 1월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프리미엄 자동차연구센터' 입주실현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밸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구성지구는 2015년까지 단지 내 도로 27.5km 개설, 성토 536만<sup>m</sup>³ 등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골프장 2.5개소(45홀) 토공사 및 조형 공사를 완료하고, 골프장 1개소(18홀)는 2015년 5월 영암군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 2-4.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및 FTA 대응

그동안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비용 및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을 통해 2015년 유기농 인증면적을 5,380ha로 확대해 전국 1위를 유지하였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2014년 12월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2015~2016년)로 생산비 4%, 2단계(2017년) 8%, 3단계(2018년) 11% 절감을 목표로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100% 공급하고, 서울 학교급식의 55%를 전남 친환경 쌀로 납품하는 등 타 시·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부장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중 FTA를 활용한 농식품의 중국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분야별·품목별 FTA 영향분석 및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 중국 수출 전략품목 육성,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중국내 전남산 농수산물 판매향 2개소를 운영하는 등 현지마케팅 활동도 강화했다.

## 2-5. 지속 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400ha 시설 및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수산종묘 2천 6백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조류 양식어장 2,790ha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 및 해안가와 유무 인도에 버려진 각종 해양쓰레기 12천톤을 수거하였다.

바이오플락 등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새우양식 20억원, 전복종묘 중간육성장 10억원, 전복육상 특화양식시설 40억원,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5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절감 및 양식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123억원, 양식시설 현대화에 514억원을 투입하였다.

## 2-6.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한 대대적 관광객 유치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 말 기준 KTX 이용객은 49%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객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5년 3월부터 KTX 대응 50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KTX 정차역과 인근 시·군간 10개 버스노선 확충 및 ‘남도한바퀴’ 관광상품 42개 개발 운영, 목포 및 송정역에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주요도시 간 정기성 전세기를 2014년 대비 2015년에 50.4% 증가한 14개 노선을 유치한 결과 공항 이용객은 2014년 178천명에서 2015년 312천명으로 75.3% 증가하였다.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정약용 「남도 유배길」 과 이순신 「조선수군 재건로」 등 탐방로를 조성하고, 황조별묘·주자묘·정율성 유적지 등 외국인 인연지 개발과 문화관광시설 안내판의 오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남해안권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거점 마련을 위해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여수항 크루즈선 접안시설 보강, 종합안내센터 설치도 추진하였다.



## 2-7. 온정있는 도민복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23,280개 제공, 경로당 5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노인공동생활시설 149개소 운영, 1,382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 돌보미 등 다양한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하였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9월 해남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하고, 곡성·영암·함평·신안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강진·고흥·영광·완도·진도·보성에 분만·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결과 8년 연속 합계출산율(1.49명) 전국 1위를 유지하였다.

섬 지역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닥터 헬기장」을 42개소로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거점 보건지소」 4개소를 신설하였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사업을 14개 시·군 36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506개 마을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고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시행 전 보다 15천명 증가한 88천명의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

일하고 싶은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개소, 전남인증어린이집 지정·운영 52개소와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442개소 등 다양한 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여성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4개 지역별 박람회와 청년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연간 868명의 취업을 연계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였다.

영산강·섬진강·탐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생태하천 17개소 복원 및 환경기초시설 88개소를 확충하고, 섬과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2013년 89.1%인 상수도 보급률을 90.1%(2014년 기준)로, 73.8%인 하수도 보급률은 75.1%(2014년 기준)로 높였다.

또한, 광양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확정, 도립국악단 전용극장인 「남도소리 올림터」 개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영화관」 개관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8. 소통과 청렴으로 도민신뢰 회복

그동안 중단되었던 광주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하계 U대회 성공개최 지원,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공동 건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 18개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호남권정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립예술단 교류 공연 등 17개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과는 백신산업 공동 유치,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자원화사업, 생활체육 교류, 前 대통령 이름 활용사업 등 7개 상생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상생포럼’ 구성, 함평군에 ‘서울농장 조성’ 및 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함경북도와 땅끝협력 추진을 위한 (사)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동부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순천에 위치한 동부지역본부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평가제’ 및 ‘공약이행 주민평가제’를 운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논의해 오고 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및 투명한 공사입찰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고강도 청렴도 제고 대책 추진으로 부패없는 청렴한 전남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정책고객(지역민, 출입기자, 교수 등) 평가는 전년대비 많이 개선된 반면 내·외부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 2-9. 민선6기 도정 2대 브랜드 시책 추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완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6개 섬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사업 대상지로 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 등 2개 섬을 선정 섬별 추진협의회 구성 및 섬 고유자원 조사를 추진중이며 2024년까지 매년 2개소씩 개발해 총 24개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섬 가꾸기 사업으로 6개 섬 방문객은 2014년 27만명에서 2015년 57만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나무심기 지원 조례’를 2015년 8월에 제정하고, 「(사)숲속의 전남」을 창립했다. 또한 생활주변에 조성된 숲을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여 관리하는 숲 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2015년 247개 단체 8,551명이 참여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나무 심기 3만 1천ha, 가로수 1,180km, 학교숲, 나눔숲 280개소, 마을숲 25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1,009만그루의 나무와 345만그루의 꽃을 심어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우수사례, 제1회 친환경별채 전국 우수상 등 6개 분야의 상을 수상하였다.